■ 법률 칼럼

취업이민 첫 단계인 Labor Certification (노동승인)

취업이민 과정의 첫 단계로 흔히 Perm이라고 통칭되는 노동승인(Labor Certification) 허가 과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Labor Certification(노동승인)

잘 알려진 대로 취업이민은 노동승인(Labor certification)단계와 실제 이민 신청의 두 단계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미국 노동부는 다음 사항을 기준으로 노동승인 신청을 심사합니다.

1. 구인광고의 적절성

취업이민의 첫 과정은 취업이민 스폰서가 미국 연방노동부(US Department of Labor)에 외국인을 고용하기 위한 영주권 신청 허가를 요청하는 노동승인 단계입니다. 노동부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 고용주는 미국 내에서 고용주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직종에 미국 내 거주자 (미국 내에서 노동이 가능한 시민권자, 영주권자나 노동허가증 소지자)를 고용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지만 적당한 지원자를 찾을 수 없었고 그래서 취업이민 신청자를 고용주 회사에서 고용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미 노동부는

고용주가 미국 내 거주자를 고용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는 증거로 일정 기간 동안 그 직종에 대한 구인 광고를 신문이나 기타 매체에 게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구인광고를 보고 고용주 회사로 오는 모든 이력서들에 대하여 적절하게 현재 고용주 회사의 직종에 적합한 지원자가 없는지를 확인하여 합니다. 고용주는 이 모든 자료를 기록하고 보관하여야 합니다. 노동승인 과정은 미 노동부가 고용주가 적절하게 필요한 직종에 대하여 광고를 했는지 그리고 그 광고를 보고 보내진 이력서들에 대하여 적절하게 답변을 했는지를 점검합니다.

2. 사업상의 필요(Business Necessity)

또 미 노동부는 노동승인 심사 과정에서 현재 고용주가 고용하려는 직종이 고용주 회사에 꼭 필요한 직종인가를 고려합니다. 만약 고용하려고 하는 직종이 고용주의 사업상 필요한 직종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경우 미 노동부는 노동승인 신청을 허가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고용주가 규모가 아주 작은 회사인 경우 그 위한 회사만을 위한 전문 회계사 (CPA)를 고용하겠다고 노동승인을 신청한 경우에 미 노동부는 그 직종을 꼭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보고 노동승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3. 직종의 한시성 (finite)

노동부는 노동승인을 심사함에 있어서 고용주가 고용하려는 직종이 지속적(permanent)으로 필요한지 아니면 한시적(finite)으로만 필요한 직종인지를 고려합니다. 만약 고용주가 고용하려는 직종이 고용주의 비지니스에 한시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면 노동부는 노동승인 신청을 거부할 것입니다.

취업이민을 계획하고 계시는 분들은 위의 사항을 잘 고려하여 고용주로 하여금 광고 요건과 그에 대한 답변을 제대로 해 주도록 신경쓰십시오. 그리고 취업이민 스폰서를 받을 직종을 정하실 때도 고용주 회사가 그 직종을 꼭 필요로 하는지 그리고 그 직종이 영구적 지속적으로 고용주 회사에 필요한지를 잘 고려하여 결정하기 바랍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 이후 노동승인의 심사가 더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더 많은 감사(Audit)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위에 언급된 사항들을 잘 준수해 강화된 심사와 감사에 대비하기 바랍니다.

Law Offices of
Joseph KW Choen
천관우 변호사
● LA Office: (213) 232-1655
● OC Office: (714) 522-5220

매주 첫째주 월요일 라디오 코리아 이민상담 진행

■ 교육

'능력' 넘는 수업 선택 말아야

고교 재학 중 유독 한 분야에서 성적이 오르지 않는다면 최상위권 대학 지원은 요원할까?

대입 컨설팅 전문기관 'Admission masters' (theadmissionmasters.com)의 Richard Vincent Kim 컨설턴트에 따르면 이 경우 가장 쉬운 해결책은 노력해도 최고의 성적을 받지 못하는 분야에서 최고수준의 클래스를 듣는 것을 피하는 것이다. 나의 강점과 능력에 비추어 현실적인 목표를 세워야 하는 것이다.

물론 전반적으로는 도전 의식을 자극하는 수업들을 듣는 것이 좋다. 그러나 나의 능력을 뛰어넘는 수업은 선택하지 말아야 한다. 레귤러 수업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는 것이 어려운 수업에서 'C' 를 받는 것보다는 낫다.

어려운 수업을 소화하기 위해 너무 많은 시간을 쏟으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다른 수업들도 성적이 부진해질 수 있다. 최악의 경우 정신 건강이나 인간 관계마저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만약 내가 잘 해낼 수 있을 것 같아서 수업을 선택했지만 하다 보니 고전할 경우 교사나 카운슬러, 친구, 가족에게 도움을 청한다. 부모는 튜터를 고용해줄 수 있고, 친구는 내가 모르는 부분을 도와주려고 할 수 있다. 교사는 방과 후 또는 수업이 없는 시간에 미팅을 잡을 수 있다. 아무도 내가 실패하길 바라지 않으며, 내가 혼자 고전하도록 방치하지 않을 것이다.

'칸 아카데미' 와 같은 온라인 리소스를 이용하는 것도 훌륭한 방법이다. 또한 스터디 그룹에 참가하는 것을 고려해 본다. 나처럼 특정 과목이나 분야에서 고전한 경험이 있는 사람한테서 조언을 듣는다면, 내가 생각하지 못한 통찰을 얻을 수 있다. 어떻게 이를 극복했는지 들을 수 있다.

현실적인 대학 지원 리스트를 작성하는 것도 필요하다. 리스트를 정할 때는 나의 강점과 능력에 대해 현실적이 돼야 한다. 아이비리그 등 종합랭킹 20위 이내 대학들은 일반적으로 모든 과목 분야에서 강력한 성적을 요구한다. 한분야에서 고전했다고 해서 이런 탑 대학들에 지원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

그러나 특정 분야에서 최고보다 낮은 성적을 받거나 덜 도전적인 수업으로 대체했다면, 지원시 불리한 면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합격을 희망한다면 내가 약한 분야를 제외한 다른 분야에서는 특출 나게 뛰어나야 할 것이다.

또 하나 명심해야 할 것이 있다. 대학생활을 최고의 경험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나와 정말 잘 맞는' 대학에 진학해야 한다. 대학에 지원할 때 명성이나 권위에 따르고 싶은 유혹에 휩쓸리기 쉽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대학이 나의 특정한 목표와 요구에 잘 부합하느냐' 를 따져보는 것이다.

만약 내가 고등학교에서 특정 과목에서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다면, 대학에 가서도 같은 과목에서 고전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선발기준이 까다로운 명문대학에서 해당 과목을 졸업을 위한 필수 과목으로 들어야 한다면, 어려움이 배가될 것이다.

고등학교에서 수업을 선택할 때는 현실감각을 유지해야 한다. 전반적으로 도전적인 수업을 수강해야 하는 것은 맞다. 지나치게 무리한 스케줄로 전체 성적을 망칠 위험을 피하고, 다른 중요한 과외 활동이나 인간 관계도 함께 소화해 나갈 수 있도록 '밸런스' 를 유지해야 한다.

프리미어 공인세무 그룹
세금보고 미국 전 지역 서비스
예약 후 방문 상담 가능
■ 세금보고 ■ 법인설립 ■ 해외자산보고
■ 연체세금 해결 ■ 세무감사대행 ■ 상속, 증여세금보고
PREMIER TAX GROUP (714)530-2033
8942 Garden Grove Blvd. #203, Garden Grove, CA 92844
각종 세금 관련 상담 및 문의
info@isemusa.com
taxcapital@gmail.com